

# 7, 8월 보건소식지

발행일 2024.7.1.

당당: 보건교사

7월은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달입니다. 여름 기간 동안에는 장마와 무더위로 세균들이 번식하기 쉬워 변질된 음식 섭취로 인한 식중독 등 배탈, 설사가 잦아지는 시기입니다. 또한 물놀이에 따른 각종 안전 사고의 발생이 많아지는 등 더욱 건강관리에 주의를 요하는 계절입니다. 우리 모두 항상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로 건강한 여름을 보내봅시다!

## NOTICE 폭염대비 건강수칙

- 샤워 자주하기
  - 외출시 햇볕 차단하기(양산,모자)
  - 헐렁하고 밝은 색깔의 가벼운 옷 입기
  -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 자주 마시기
  - 더운 시간대(낮12시~오후5시)에는 휴식 취하기
- \* 날씨가 갑자기 더워질 경우 건강상태를 살피며 활동 강도 조절하기



## 야외활동은 자외선 차단제와 함께! 알맞은 자외선 차단제 선택하기

### 자외선이란?

자외선은 태양광선의 일부이며, 햇빛이 비치는 동안 우리 피부에 닿게 됩니다.

### 자외선의 종류

자외선은 A,B,C로 나뉘는데, 자외선 C는 오존층에서 흡수되어 지구 표면에 닿지 않기 때문에 피부건강과 큰 연관이 없고, 우리 피부에 영향을 미치는 자외선은 자외선 A와 B이다. 그 중에서도 자외선 B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, 일광화상이나 피부노화를 일으키고 피부암을 발생시킨다. 자외선 A도 자외선 B보다는 약하지만 피부노화를 일으키고 햇빛 알레르기 등을 일으킬 수 있다.

###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

#### 일광화상

오랜 시간 강한 햇빛에 노출될 경우 피부가 붉어지고 물집이 생기기도 한다. 특히 여름철 바닷가에서 피부를 장시간 햇빛에 노출시키면 발생하는데, 자외선에 노출된 뒤 6시간 뒤에 염증 반응이 시작되고 24시간 후에 최고조에 다다랐다가 점차 가라앉으며 각질이 벗겨진다.

#### 피부노화

자외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피부 노화가 더 빨리 일어난다. 적절한 자외선 차단을 하지 않고 30-40대가 되면 지속적인 자외선 노출에 의한 손상으로 기미, 잡티 등이 나타나기 시작한다.

### 적절한 자외선 차단제 고르는 방법

#### 자외선 A와 B를 모두 차단해주는 자외선 차단제 선택!

SPF(Sun Protection Factor) 지수 : 자외선 B에 대한 차단지수  
PA 지수 : 자외선 A에 대한 차단지수

일상생활 중에 사용하는 자외선 차단제는 SPF 30 이상되는 정도를 선택하면 되며, PA ++ 또는 PA +++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. 즉, 두 가지 지수를 모두 확인하고 자외선 A와 자외선 B를 모두 차단해주는 자외선 차단제를 골라야 한다.

## 온열질환 예방하기

- ◆ 열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발생하는 질환
- ◆ 증상: 두통, 어지럼, 근육경련, 피로감, 의식저하 등
- ◆ 온열에 취약한 대상자 : 노인, 어린이  
    심뇌혈관 질환자, 고·저혈압환자, 당뇨병 환자, 신장질환자
- ◆ 온열질환 종류

구 분	주요 특성
열사병 (Heat stroke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고열(<math>&gt;40^{\circ}\text{C}</math>)</li><li>• 건조하고 뜨거운 피부(땀이 나는 경우도 있음)</li><li>• 의식을 잃을 수 있음(중추신경 이상)</li><li>*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음</li></ul>
열탈진 (Heat exhaustion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땀을 많이 흘림(<math>\leq 40^{\circ}\text{C}</math>)</li><li>• 힘이 없고 극심한 피로(탈수 및 전해질 소실)</li><li>• 창백함, 근육경련</li></ul>
열경련 (Heat cramp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근육경련(어깨, 팔, 다리, 복부, 손가락)</li></ul>
열실신 (Heat syncope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어지럼</li><li>•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음(뇌허혈 상태)</li></ul>
열부종 (Heat edema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손, 발이나 발목이 부음</li></ul>

## 온열질환 응급처치

<h3>의식이 있는 경우</h3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시원한 장소로 이동</li><li>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을 시원하게 함</li><li>수분섭취</li><li>개선되지 않을 경우 119 구급대 요청</li></ul>	<h3>의식이 없는 경우</h3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119 구급대 요청</li><li>시원한 장소로 이동</li><li>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을 시원하게 함</li><li>* 의식이 없을 때 음료를 마시게 하면 질식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</li></ul>
---	--

# NOTICE 약물오남용 예방

## \* 올바른 의약품 사용



- 병원에서 진료 시 자신의 증상을 자세히 설명하기
- 기존 복용하는 약이나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기
- 약국에서 약 처방 또는 구입 시, 의약품의 이름, 효능, 복용량 복용법 설명 잘 듣기 (부작용, 유의사항, 보관방법 확인)
- 주스 & 카페인 물 한 컵 주스, 카페인 음료와 같이 섭취하지 않기  
약 복용 시 복용 시간, 복용 방법 확인  
물과 함께 먹기
- 의약품의 사용 기간 확인: 남은 약은 오래 두지 말고 버리고, 약의 유통기한 확인하기
- 남은 약은 주민센터,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는 폐의약품 수거함에 버리기

## \* 카페인(향정신성물질)의 영향

-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▪ 일시적 혈압 증가 | ▪ 심장질환 발병률 증가    |
| ▪ 심장박동 증가   | ▪ 불안, 메스꺼움, 수면장애 |
| ▪ 카페인 중독    |                  |

### 카페인 일일 섭취 권고량

청소년	성인	임산부
어린이와 청소년은 체중 1kg당 2.5mg 이하	성인은 400mg 이하	300mg 이하

### 식품별 카페인 함유량



### 카페인니즘 (caffeinism)

카페인은 습관성(habituation)을 유도하는 물질로서 반복적인 카페인의 섭취는 내성과 함께 정신적 의존을 유발함.

금단 증상: 두통과 어지러움, 나쁜ham, 피로감, 짜증, 불안

카페인이 의존을 유발하지만 그 증상은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아서 의료적 중재 없이도 극복 가능

- 약 1주일 정도만 잘 참아내면 금단증상들이 사라짐.



### 청소년은 카페인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해요

법(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8조 제2항)에서도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학교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.

성장기 어린이를 고카페인 함유 식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임.

# 여름철 식중독 예방

기온이 상승하여 식중독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  
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및 가정생활을 위해 식중독 예방수칙을 안내해 드립니다.



## \* 식중독이란

식품 섭취 시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이나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

## \* 주요증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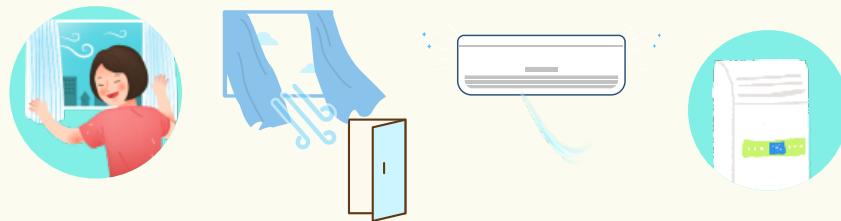
설사, 구토, 복통, 발열

## \* 식중독 예방을 위한 6가지 실천수칙



# 냉방병 예방

## 냉방기기 사용 및 환기



### 1. 1일 최소 3회(10분) 이상 창문 열어 환기하기

- 밀접도가 높은 공간이라면 더 자주 환기를 해주세요!

### 2. 맞통풍이 일어나도록 문과 창문 동시에 여러개 열기

- 맞통풍을 유도하여 신선한 공기가 실내에 들어오게 하고

창문을 넓게 열기 어려울 경우 지속적으로 환기를 시킵니다.

### 3. 냉방 중에도 주기적으로 환기하기

- 냉방 중에 환기를 하지 않으면 비말이 재순환되어 감염 위험성 증가.

- 일상생활의 90%를 머무는 실내의 환기가 부족하면

외부환경보다 최대 10배 오염될 수 있음.